

과기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행정상 바람직한 상태를 행정청이 강제로 실현하는 것과 ii)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로서, 제17조, 제24조, 제68조 등과 같이 기존의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해 버리는 것이며(현대사회의 대부분의 생업이 인허가를 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iii) 마지막으로 행정벌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행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은 이와는 별개로 비교적 새로이 등장한 역사가 짧은 제재수단입니다. 이는 위 ii) 인허가의 취소, 정지의 변화된 모습으로서 볼 수 있으며, 인허가를 “정지”(취소는 아닙니다)에 해당할 할 경우에 만일 정지처분한다면, 그것이 위반자인 사업자에게보다는 전기사용자와 같은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하는 공익적 이유가 있는 경우(제17조 2항 참조)에는 정지에 같음하여 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80년대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도입되기 시작한 제도로써 사업자의 불법적 이익을 박탈해 버리겠다는 취지에서 금액이 다액인 경향이 있습니다(통신사업자에 대한 수백억원의 과징금 등).

문제의 답변으로는 벌금은 징역 등과 같은 위 iii)의 행정벌의 하나로서 전통적 제재방법이고, 과징금은 새로이 등장한 제4의 제재수단으로서 그 혈통은 위 ii) 인허가 취소, 정지의 변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여 행정벌과 과징금은 병과(두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통은 다르지만 같은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면, 11조 전단의 위반은 “정지” 대상이 아니라 “취소”의 대상으로서 이는 과징금으로 같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정보 마당

### 금연의 날...5원칙 잘 지키면 “담배 끝”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금연의 날’이다. 한국은 성인 남성흡연율이 올해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흡연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에 비해서는 흡연인구 비율이 아직 높은 편이다.

금연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실제 끊기 쉽지 않은 것이 담배다. 금연에 성공하려면 금연 시작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지적이다. 미국 인디애나대학 치과대학 박기철 명예교수는 금연 시작전 2주간 준비과정과 금연시작후 2주간의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교수가 지난해 ‘치과연구’ 지를 통해 소개한

‘금연 5원칙’이다.

- 금연날짜 택일 : 먼저 생일이나 기념일 등 기억하기 쉽고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선택해 흡연을 중지하는 날짜로 정한다. 금연을 시작할 날짜를 결정한 뒤에는 이를 달력에 크게 표시하는 등 반드시 성공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상기시킨다.
- 주위환경 바꾸기 : 담배를 오래 피웠다면 자신의 주변에 흡연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보통이다. 금연 시작 2주전부터는 집이나 회사에서 담배, 재

떨이, 라이터 등 흡연과 관계된 물건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하고, 담배는 제한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담배를 쉽게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승용차와 집안을 청소해 담배냄새를 제거한다.

- 신체적 적응 : 니코틴 중단에 따른 금단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생리적인 적응을 해야 한다. 먼저 치과를 방문해 스케일링 등으로 치아를 청결하게 한다. 술을 마시면 금연의지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삼간다. 커피를 마시는 양도 줄여 나간다. 금연 후 카페인 많은 커피를 많이 마시면 신경이 민감한 자극을 받게 된다. 금연 후 2주간은 심신의 피로가 심하므로 미리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물이나 과일주스를 충분히 마시고 호두, 건포도, 해바라기씨 등을 간식으로 먹어 흡연충동을 약화시킨다. 무설탕껌이나 캔디도 도움이 된다.

- 정서적 준비 : 먼저 자신이 금연을 해야 할 이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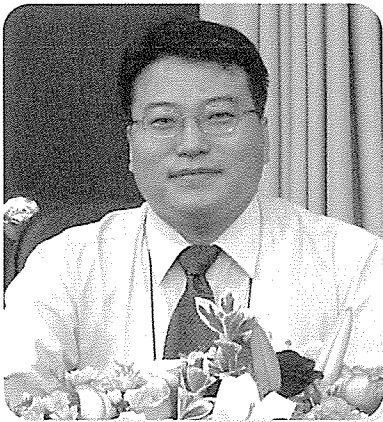
자신에게 반복해 강조한다. 흡연중지 필요성을 종이에 써서 붙여놓는 것도 좋다. 그 다음 금연을 시작하며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무료한 시간이 지속되면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기 때문이다. 손이 비어서 공허함을 느끼지 않도록 연필 등을 손에 잡고 만지작거린다. 한 개비쯤은 피워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 주위에 공표 : 주위에 금연사실을 널리 알려 도움을 받도록 한다. 친구나 가족에게 자기 자신이 흡연중지를 위해서 어려운 여러가지 과정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주변의 지원을 많이 받는 흡연자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주변에 흡연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당히 금연사실을 밝히고 양해를 구한다.

-보건복지부/건강 길라잡이 제공

## 방사선안전관리자 릴레이 인터뷰 ⑭

### 한국수력원자력(주) 방사선보건연구원 이병일



이번 릴레이인터뷰 주자는 저선량조사 및 PET-CT진단시설 등을 갖춘 방사선보건연구원의 방사선안

전관리자 이병일(42세) 과장이다.

이 팀장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1984년도에 입사하여 영광발전소에서 2001년도까지 방사선안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무렵 본지의 전호(4월호) 인터뷰 주자인 이승호 부장과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방사선보건연구원(원장 김종순)의 실무부서로는 연구관리팀, 방사선영향연구팀, 응급의료팀 및 건강관리팀, 행정팀 등 5개의 팀과 PET-CT센터가 있다. 연구관리팀 보건물리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는 그는 각 팀의 활동사항을 이렇게 들려준다.

“우리 보건물리연구실에서는 방사선방호 신기술 개발과 다양한 선량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최근 국내 최초로 한국인 표준체형에 근간한